

가족계획에 대한 미혼 남녀의 지식 및 태도 조사

중앙의학 제40권 제5호, pp. 313~320, 1981.

김 문 영

1981년 3월2일부터 동년 3월31일까지 안동시내에 취업 중인 일부 미혼 남녀 240명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1. 가족계획 용어의 인식도에서 남녀 모두 비교적 정확한 지식인 자녀를 계획적으로 출산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. (80%, 84.2%).

2. 가족계획 용어에 지식경로는 매스콤을 통한 것이 남녀 모두 48.3%, 57.5%로 가장 많았다. ($p < 0.01$)

3. 가족계획에 관한 추후교육에 관해서 89.6%가 교육받기를 희망했고, 시청각교육 26.5%, 단 25.1% 순으로 교육방법으로 원하고 있었다.

4. 가족계획 교육실시가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남녀 모두 중·고교시절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. (59% 62%).

5. 장차 가족계획을 실시할 예정인 사람은 남자 69.2%, 여자 80%로 나타났으며 남자 27.5%, 여자 19.2%가 경우에 따라 실시하겠다고 했다.

6. 가족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자 86.7%, 여자 91.7%가 필요한 시책이라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남자 75%, 여자 76.4%에서 보다 잘 키우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.

7. 가족계획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의사 27.1%, 친구 14.2% 순으로 나타났다. ($p < 0.01$)

8. 피임방법의 채택 희망율은 경구피임약이 17.9%, 콘돔 12.9%, 정관수술 8.8%, 월경주기법 4.6% 순으로 나타났다. ($p < 0.01$)

9. 남아선호도는 남자 63.3%, 여자 52.5%, 초대·전문학교졸업자의 45.7%, 대학졸업자의 55.6%에서 남아가 한 가정에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.

10. 결혼 후 희망 자녀 수는 남녀 모두 아들이건 딸이건 둘만 낳겠다고 가장 많았다. (53.3%)

안동시내 기혼 남녀의 가족계획에 대한 견해 및 실태 조사

중앙의학 제41권 제1호, pp. 33~39, 1981.

김 문 영

결 론

안동시내의 거주하는 기혼남녀 220명을 대상으로 1981년 2월 1일에서 동년 2월 28일 까지 가족계획에 대한 견해 및 실태를 조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. 가족계획 용어에 대해 비교적 올바른 지식인 자녀를 계획적으로 산출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. (75.9%)
2. 남녀 모두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(81.8%), 이상적인 교육방법으로 가족계획요원과의 상담을 통해서가 26.7%로 수위이며, 가장 적절란 시기는 중·고교 시절이라고 응답했다(42.7%).
3. 남녀의 89.1% 여자의 90%에서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.
4. 가족계획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대상자는 의사 45.9%, 가족계획요원 17.7%, 기혼자 15.5% 순이었다. ($p < 0.05$).
5.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피임방법으로 경구피임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. (79.5%) 알게 된 경로는 T. V 나 신문광고를 통해서가 35%로 수위를 차지하였다.
6. 피임 실시율은 전체적으로 56.8%이며 20대 40.5%, 30대에서 60.3%, 40대 63.6%, 50대 50%이며 학력별로는 고교졸업자가 63.1%로 가장 높았다.
7. 실시하고 있는 피임방법으로는 경구피임약 22.4%, 콘돔 19.2%, 정관수술 16% 순이었다.
8. 남아선호도는 남자의 68.2%, 여자의 65.5%로 나타났다.

예방접종의 지식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연구

중앙의학 제40권 제5호, pp. 329~336, 1981.

김 향 자

1980년 9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1개월간 대구시 동구에 생활근거를 둔 24개월 미만의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 336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상태와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, 태도 및 실천상태 부작용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조사연구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.

1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중 대상 어머니의 연령은 82%가 34세 미만이며 교육정도는 61.2%가 9년 이하이다. 종교는 불교가 38%로 가장 많고 기독교(13%), 천주교(14%)는 거의 동등하다. 원하는 자녀수는 61%가 아들 1명, 딸 1명을 원하고 있고 57